

#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일본, D2D 원격의료 대응 현황

# CONTENTS

01

## 포커스

일본, D2D 원격의료 대응 현황 .....	1
--------------------------	---

---

02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Vertex, 유전자편집 의약품 개발 .....	4
미국, 흑인 대상 화장품 시장의 동향 분석 .....	4
유럽 HERA, 원숭이두창 백신 확보 .....	5
유럽 EPRS, 인간 유전체편집기술 관련 분석 .....	5
일본 도쿄대, 피부 배양 손가락형 로봇 개발 .....	6
몽골, 의약품 규제 개선을 ADB와 공동으로 추진 .....	6
태국 화장품 시장, '22년에도 4% 성장세 지속 전망 .....	7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 .....	7

---



## 03

### 의료서비스

미국, 오미크론 하위 변종 확산으로 우려감 증가 .....	8
미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보험 범위 확대 조치 발표 .....	8
유럽 EC집행위원회, 미국 보건복지부와 협력 강화 .....	9
중국 국무원, '22년 의료 및 보건시스템 개혁 통지문을 발표 .....	9
호주, 비만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확대 .....	10
중동·아프리카, 헬스케어 시장 연평균 11.7% 성장 예상 .....	10
미국 UnitedHealth,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1억 달러 투자 .....	11
치과 의료관광, '32년에는 243억 달러로 증가 전망 .....	11

---

## 04

###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Oracle, 전국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	12
미국 FDA, 심장 박동 감지 Apple Watch 앱 승인 .....	12
호주, AI 기반 의료 로드맵 제시 .....	13
중국, AI 기반 생물학 연구에 과감한 투자 실행 .....	13
베트남, 의료분야 디지털전환 추진 .....	14
아세안, 핀테크 적용을 통한 디지털헬스 확대 .....	14
미국 BMS, 프랑스 Owkin사와 파트너십 체결 .....	15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 당면 과제와 확대방안 .....	15

---

## 일본, D2D 원격의료 대응 현황

의사와 의사를 연결하는 의사·의사 간(Doctor to Doctor, D2D) 원격의료는 의료의 질 향상, 환자의 편의 향상, 의료의 지역 격차 시정, 충실한 지역의료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아직 일본 전역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지는 못한 상태. 그러나 COVID-19 팬데믹은 비대면, 비접촉 의료행위가 가능한 원격의료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최근 의사의 근무방식 개혁이 진행되어 적극적인 ICT 활용과 관련해서도 원격의료 도입이 주목받고 있으며 원격 수술지도, 원격 ICU 등 새로운 원격의료 모델도 등장하고 있는 바 COVID-19 발생을 전후로 한 일본의 D2D 원격의료 대응 현황을 정리

### [1] 일본의 D2D 원격의료 대응 사례

#### ■ 원격 방사선 화상(画像)진단 - ICT를 활용해 CT·MRI 등의 데이터를 전송해 방사선과 의사가 없거나 부족한 의료기관의 영상진단을 원격지에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지원

- 주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판독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영상을 가져가야 하지만 원격 방사선 화상진단을 도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기회가 확대돼 지역의료의 질도 향상
- 원격 방사선 화상진단은 가장 많이 보급된 D2D 원격의료 모델로, 민간 기업이 서비스 제공 주체로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위탁해 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턴도 등장
- COVID-19 이후에는 실시간 연계가 아닌 화상 데이터 송·수신, 판독 보고서 전송이라는 연계 체제가 보급되면서 COVID-19 발생을 전후로 한 변화는 적은 편이지만 폐렴을 COVID-19로 혼동하는 등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방사선 영상과 관련해 새로운 원격판독 니즈가 발생
- COVID-19 발생 후에는 촬영실 밀집을 피할 목적으로 이미 도입된 원격 화상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의사가 집에서 판독하거나 동 시스템을 탑재한 CT 검진차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령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입소자의 CT 검사를 실시
- COVID-19와 근무방식 개혁으로 자택 등 외부에서 영상을 판독하려는 니즈가 있지만 의료시설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침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DICOM 영상\*이나 전자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의료정보 네트워크 기능 확장이 필요

\*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 CT, MRI, CR 등 의료용 영상포맷, 의료용 영상기기간 이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 정의하는 의료용 영상의 공통규격

■ **원격 구급지원 -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이 뇌졸중,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등의 환자를 수용할 때 ICT를 활용해 환자의 검사영상 등을 지원시설에 제공함으로써 전문의가 치료·이송을 지원**

-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은 응급환자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원격 구급지원 도입으로 필요에 따라 응급환자를 수용, 전문의 지원하에 대응하거나 초기 조치 후 이송
- 원격 구급지원은 원격의료 모델 가운데 비교적 도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모델로 지방의 도입 니즈가 많은 편이지만 지방에 따라 도입비용이나 운용비 확보 등이 과제
- COVID-19 발생 후 감염환자 이송요청이 급증하면서 구급차 이용이 어려워져 뇌중증이나 심장질환 등 긴급환자 이송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하자, 고정밀 카메라나 모바일 초음파 진단장치를 탑재한 구급차나 닥터카로 이송중에 원격으로 전문의가 진단을 지원
- 츠쿠바(筑波)메디컬센터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소형 두부(頭部)CT장비와 원격통신 장치를 탑재한 닥터카를 만들고 telexistence형\* 원격작업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CT, 초음파에 익숙하지 않은 기사나 의사의 조작을 지원

\*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인간의 존재 확장 개념이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체계

■ **원격 집중치료실(ICU) - 여러 ICU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중심병원에 설치한 ‘컨트롤 센터’에서 집중치료 전문의 등이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현장 의료진의 진찰을 지원**

- 일본의 ICU는 대부분 전문의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지만 병원에 전문의가 없더라도 원격 ICU 도입을 통해 전문의가 진료를 지원하면 의료의 질 향상과 현장의사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화, 환자 삶의질(Quality of Life, QOL) 향상, 의사의 근무방식 개혁도 가능
- COVID-19 발생 이후에는 수용 의료기관 부족, 전문의 부족 등 ICU의 과제가 현저하게 드러났는데 도시는 의료기관이 많고 의사가 분산돼 있어 전문의를 집약해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제
- 지방은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병원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triage)를 철저히 집약하고 지시함으로써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적재적소의 의료기관에 연결하는 것이 과제
- 원격 ICU모델은 동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수, 환자의 시점, 피지원 의료시설 의료자원, 서비스 계약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모델은 △(지속케어) 정해진 시간 내에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 △(계획적 케어)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진 △(급변시 대응) 경고나 필요한 때 개입 등으로 다양하게 조합
- 최종적인 진료 지원은 D2D로 하지만 시스템 작동 자체는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담당하며 COVID-19로 원내 ICU나 병동의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니즈도 높아지는 상황
- 원격 ICU는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시스템 도입 비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도입 메리트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후에 지원자, 의뢰자의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무방식 개혁 관점에서 의사가 지원센터에 가지 않고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면 활용 폭이 커질 전망

■ 원격 수술지도 - ICT를 활용해 수술부위 영상, 환자의 바이탈 데이터, 검사영상, 수술실 내부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원격지에 있는 다른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술

- 원격 수술지도의 유용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시스템 도입 비용이나 지도하거나 지도를 받는 관계성이 구축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적은 편
- 그러나 원격 수술지도가 활성화되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라도 각 분야 전문의 지도하에 수술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청년·중견 외과의사의 지방 근무를 지원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의사편중 문제도 해결
- COVID-19가 확산된 후에도 실증실험은 계속되고 있으며 '20년에는 5G 회선으로 고베(神戸)대학 의학부 소속 국제 암의료·연구센터와 통합형 연구개발·창출거점을 연결해 원격조작에 필요한 고정밀 수술영상(3D)과 로봇 제어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수술지원 로봇 'hinotori'로 모의수술 실시
- 또한 도쿄여대 의대와 NTT도코모는 상용 5G를 활용한 원격수술시스템 및 이동형 스마트 치료실인 SCOT를 이용한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스마트 치료실과 원격지에 있는 전문의를 연결해 고정밀 수술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의 쌍방향 통신을 검증
- 원격 수술지도 도입 배경은 지역이나 진료분야에 따라 다양한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된 지역은 대학병원이 지역의 핵심병원을 지원하면서 핵심병원에서도 대학병원과 동일한 의사 지도체제를 갖추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도입
- 원격 수술지도 도입은 보급 관점에서 필요한 지자체(의료 과소지역)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학이나 지역 전체가 의사를 육성하는 목적을 공유하지 못하면 적절한 협력이 불가능하고 도입비용 확보, 보험적용 등의 제도, 도입 시기 등의 조건이 동시에 맞지 않으면 도입이 곤란

[2] 일본 지자체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

■ COVID-19 발생 이후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주도하에 D2D 원격의료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

- 효고현(兵庫県)은 지역 의료연계 체제 구축과 산간벽지 의료 종사자 확보·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원격의료에 대응중으로, 고베시립의료센터 중앙시민병원과 연계해 COVID-19 환자가 입원한 시내 의료기관에 '원격집중치료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집중치료 전문의가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를 지원
- 야마구치현(山口県)은 '00년부터 산간벽지 의료가 충실하도록 야마구치현립 종합의료센터(지원측)와 벽지 의료기관을 5G로 연결하는 원격지원시스템 실증실험 등을 실시
-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때 야마구치현 종합의료센터에 5G 회선을 이용해 내시경 영상 등을 전송하면 전문의가 해당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병변 등 염려가 되는 부분을 포인터로 제시하고 의뢰한 의사는 조안을 바탕으로 위내시경 카메라를 조작

[ 総務省, 2022.03.; 厚生労働省, 2022.03.28.]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 미국 Vertex, 유전자편집 의약품 개발

■ 미국 버텍스(Vertex)사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사가 개발한 유전자 편집 의약품은 겸상적혈구질환(sickle cell disease) 또는 베타지중해빈혈(beta thalassemia)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전망

-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될 경우, 현재 엑사셀(exa-cel)로 알려진 이 치료 방법은 '20년 노벨상을 수상한 혁신적인 유전자편집 기술인 크리스퍼(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시판 의약품이 될 것으로 예상

\* sickle cell의 유전적 돌연변이는 기형 적혈구를 생성하여 혈관 폐쇄 위기(vaso-occlusive crises)로 알려진 고통스럽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을 유발하며, beta thalassemia는 유전 질환이기도 하나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리는 산소 운반 단백질의 생산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환자는 생존을 위해 정기적인 수혈이 필요

- Vertex와 CRISPR 이외에도 블루버드바이오(Bluebird bio), 에디타스메디신(Editas Medicine), 사노피(Sanofi) 및 산가모테라퓨틱스(Sangamo Therapeutics)의 파트너는 겸상적혈구 및 베타지중해빈혈에 대한 세포 및 유전 요법을 연구

[Biopharma Dive, 2022.06.11.; Pharma Forum, 2022.06.12.]

### 미국, 흑인 대상 화장품 시장의 동향 분석

■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21년 기준으로 600조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5%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25년에는 730억 달러에 이를 전망되는 가운데, 흑인들을 위한 시장 규모는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 12.4%에 약간 못 미치는 11.1%를 차지

-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McKinsey)사에 따르면, 흑인 소비자들이 흑인 화장품 전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선호도는 2.2배나 높지만 화장품에 대한 불만족한 경험을 가진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장품 업계에서 흑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

\*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흑인 전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화장품 전문점이나 드럭스토어 등에서 흑인 전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하며, 일반 소매업에서 전문샵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에서 흑인의 고용 비중 역시 4~5% 수준

- 따라서 흑인 화장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한다면 이러한 흑인 대상 화장품 시장의 규모 확대는 물론, 화장품 시장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McKinsey & Company, 2022.06.10.; NBC News, 2022.03.18.]

## 유럽 HERA, 원숭이두창 백신 확보

■ 유럽 '보건비상대비및대응기구(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 HERA)'는 원숭이두창(monkeypox)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용 백신 확보

- 6월 14일, EU집행위원회(Europena Commission, EC)의 건강 대비 및 대응을 위해 '21년 10월 설립된 HERA는 현재의 원숭이두창(monkeypox) 발병에 대응하여 109,090회분의 3세대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을 덴마크 백신전문 생명공학 기업인 바바리안노르딕(Bavarian Nordic)사와 체결
- EC의 보건및디지털집행기관(Health and digital executive agency, HaDEA)은 HERA를 대신하여 3세대 백신을 구입하고 HERA는 가장 필요한 국가부터 시작하여 비례적으로 EU 회원국에 백신을 제공할 예정
- 5월 18일 이후 EU 19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 약 900건의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

[European Commission, 2022.06.14.]

## 유럽 EPRS, 인간 유전체편집기술 관련 분석

■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커다란 의료적 성과인 동시에 위험성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인간 유전체편집기술과 관련된 EU와 세계 각국의 법과 거버넌스 원칙을 검토하고, 체세포와 생식세포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발간

- EPRS의 미래 과학기술 패널(Panel for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OA)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인간 유전체편집기술과 관련된 EU와 세계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존 규제 및 법령에 기초하는 수직적 관점과 특정 분야에서 유전체 편집을 허용하는 수평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 기존 제도 및 규제와 관련된 수직적 관점에서 볼 때, 유전학적 우생학(genetic eugenics)은 EU 기본 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3조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규제하는 보다 투명하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
- 의료 및 불임치료나 미용 목적의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실험적 목적이나 최근의 승인 결과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
- 결론적으로 유전체편집기술이 의료 영역에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역에서 EU 차원의 규제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을 강조

[European Parliament, 2022.06.03.]



## 일본 도쿄대, 피부 배양 손가락형 로봇 개발

### ■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인간에게서 유래한 세포를 배양해 제작한 피부조직으로 표면을 덮은 세계 최초의 살아있는 피부를 가진 손가락형 로봇 개발

- 화장품, 의약품 실험 외에 이식에 이용됐던 기존의 배양 피부는 2차원 구조의 시트형으로 3차원 구조로 제작하기 어려웠지만 연구팀은 손가락 형태의 구조에 직접 세포를 배양해 로봇의 표면을 덮는데 성공
- 동 로봇은 진피에 상처를 낸 후 상처 부위에 콜라겐 밴드를 붙여 배양액에 넣어두면 진피세포가 늘어나거나 이동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상처를 복구하였으며, 모터를 사용해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면 관절부분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조직은 적지만 수십 회 반복해도 견딜 수 있는 탄력성도 확인
-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조직 가운데 이번에 실현한 것은 표피와 진피뿐이지만 앞으로는 혈관, 신경계, 땀샘, 모낭 같은 조직도 개발할 계획으로 인간의 촉감과 같은 센서기능, 땀을 내서 체온을 낮추는 것과 비슷한 배열기능을 가진 인공피부도 개발할 예정
- 이번에 개발된 피부배양 기술은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의 표피 재료나 의수나 의족에 대한 응용, 피부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 이식 소재로 재생의료 분야에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産経新聞, 2022.06.10.; IT Media, 2022.06.10.]

## 몽골, 의약품 규제 개선을 ADB와 공동으로 추진

### ■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 부문의 민영화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몽골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의약품의 규제 일원화, 의약품 안전 시험평가기관의 수준 향상,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산업 관행 수립 등을 공동으로 추진

- 1980년대 말까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규제로 체계를 갖추던 몽골의 의약산업은 1990년대 초반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불황으로 인해 의약품 부족 사태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도입했으나, 의약품의 생산과 도매 및 소매의 모든 영역이 극소수의 민간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
- 몽골 정부와 ADB는 △단일화된 규제 당국의 신설 △의약품 안전 시험평가 기관의 수준 및 역량의 제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산업 내 관행 수립 △의약품 가격과 약물 관리 시스템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집중화된 공공병원 의약품 조달 시스템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
- 이러한 정책 추진이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료 규제 당국의 설립과 함께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의약품 제조 및 마케팅, 유통, 감독 분야를 포괄하는 의약품 규제 개선이 필요

[ADB, 2022.05.27.]

## 태국 화장품 시장, '22년에도 4% 성장세 지속 전망

■ 태국의 화장품 시장은 4%에 육박하는 고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스킨케어 분야의 미용 위생 제품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한국의 TV 시리즈물에 나오는 남성용 제품 및 아동용 제품의 인기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태국산업연합회(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의 보건 및 미용 분과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의 화장품 업계는 COVID-19의 영향으로 '20년 0.94%에 지나지 않던 시장 성장세가 '21년의 3%대에 달했으며, 시장 회복 모멘텀이 '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1년 3,200억 바트 규모의 태국 화장품 시장은 스킨케어 제품 비중 39%, 모발케어 15%, 위생 제품 12%, 구강미용 제품 12%, 메이크업 11%, 남성용 화장품 7%, 향수 4% 순으로 구성

- 이러한 태국 화장품 시장의 회복세에는 위생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 업계의 성공적인 전략 수정과 함께 팬데믹 이후 대기오염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
- 또한 '22년 한국의 TV 시리즈물의 인기에 편승해 이 시리즈물에 나왔던 어린이용 제품이나 남성용 화장품과 관련된 스킨케어 분야의 제품들이 시장 성장세를 주도
- 태국은 동남아 지역 최대의 화장품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세안(ASEAN)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을 보면, 태국이 43%, 한국 36%, 일본 16.3%, 호주와 중국이 각각 7.7%를 차지

[Bangkok Post, 2022.05.13.; Cosmetic design.com, 2022.06.08.]

##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

■ 글로벌 투자은행 RBC캐피털마켓(RBC Capital Markets)에 따르면 '22년 상반기에 의료기기 회사에 영향을 미친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문제는 '22년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공급망 제약, 인플레이션, 병원 인력 부족 등 거시적 추세로 인해 '21년 하반기 이후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COVID-19 이후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잠재적인 경기침체 등과 결합되어 업계의 불확실성을 확대
- 의료기기 회사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가운데 잠재적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공급망과 인력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하반기에 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
- 업체들은 소싱 확대 및 재고 구축을 통해,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상황이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겨울 기간 동안에 물류 및 지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

[Medtech Dive, 2022.06.13.; Medical Design& Outsourcing, 2022.05.26.]



## 의료서비스

### 미국, 오미크론 하위 변종 확산으로 우려감 증가

■ 과학자들로부터 전염성이 강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는 COVID-19 오미크론(Omicron)의 새로운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4와 BA.5가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COVID-19 변종 확산에 대한 우려감 확대

- 6월 7일에 발표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하위 변종 BA.4와 BA.5는 현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COVID-19 확진 사례의 각각 5.4%와 7.6%로, 전체 확진 사례의 대략 13%를 차지
- 6월 초 미국에서 두 변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확진 사례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5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BA.4와 BA.5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두 하위 변종 모두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에 의해 전염성, 중증도 및 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인 '우려 변이(Variants Of Concern, VOC)'로 분류

[The Guardian, 2022.06.08.; CDC, 2022.06.18.]

### 미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보험 범위 확대 조치 발표

■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공개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 OEP) 중에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조치를 발표

- 미국 HHS는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ACA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소비자들이 '2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의료보험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의 공개 등록 기간에 맞추어 공공의료보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공공 의료보험 체계에 선택 가능한 새로운 옵션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의 질과 가치를 비교하여 가계소득에 맞는 최적의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공공 의료보험 가입 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

\* '10년에 도입된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은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보험에서 선택 옵션을 확대하여 민간 보험회사들과의 경쟁구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추진

[HHS, 2022.04.28.]

## 유럽 EC집행위원회, 미국 보건복지부와 협력 강화

###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공중보건 위협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 서명

- \* 5월 19일 베를린에서 서명된 양측 간 협정은 EU측에는 EC 산하 보건비상준비대응국(Health Emergency and Preparedness Response Authority, HERA)와 보건·식품안전총국(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DG SANTE)이 담당하고, 미국 측은 보건복지부(HHS)가 주요 협상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
- EC와 HHS는 △공동위협평가를 검토하여 협력이 필요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공중보건 위협을 매년 하나 이상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건강 위협 조기 탐지를 목적으로 글로벌 감시를 위한 보안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
- 또한 △백신 플랫폼 평가 및 조달 활동 지원 △혁신적인 의료 대책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조정 지원 △공중보건 위협 대응에 대한 제3국 지원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공동 행동을 실시하여 건강 위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대응할 계획

[European Commission, 2022.06.09.]

## 중국 국무원, '22년 의료 및 보건시스템 개혁 통지문을 발표

### ■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의료 및 보건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중점 업무 및 임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2022年重点工作任务)'를 발표하고 의료 및 치료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 4대 분야 총 21개 항목의 심층 실행방안을 제시

- (의료 및 치료시스템 구축 가속화) △국립의료센터와 국립지역의료센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지방 수준에서 병원의 고품질 선도 역할을 수행 △시(市) 현(县) 수준의 병원 서비스 역량 강화 △일차의료 및 보건서비스 수준 향상 △등급별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질서를 최적화
- (싼밍시(三明市)의 의료개혁 사례 홍보) △싼밍시(三明市)의 의료개혁 사례 및 경험 확대 △의약품 소모재의 집중 구매를 추진 △의료서비스의 가격개혁 추진 △의료보험의 지급방식 개혁 추진 △공공병원의 인사보수제도(人事薪酬制) 개혁 심화 △전반적인 감독 강화
- (공중 보건 서비스의 역량 강화) △질병 예방 및 통제 능력 향상 △의료 및 예방 협력 강화 △COVID-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개선
- (의료 및 건강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 △공공병원의 포괄적인 개혁과 고품질 의료서비스 개선 촉진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역할 강화 △다단계 의료 보안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 △의약품 공급의 보안 능력을 강화 △중의학 활성화와 발전 촉진

[国务院, 2022.05.25.]

## 호주, 비만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확대

■ 호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증가세는 비만에 따른 과도한 체중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17~'18년 호주 통계청이 실시한 전국민 보건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에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Replacement, TKR)을 받은 호주인은 56,217명이며, 이 중 57.7%가 비만인 것으로 조사
- 분석 결과에 따르면, 55~64세의 비만 여성의 경우 비만이 아닌 여성에 비해 TKR 수술을 받을 확률이 17배나 높고, 비만 남성의 경우는 비만이 아닌 남성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만에 의한 과도한 체중은 무릎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며, 결국 관절 부상과 수술로 귀결
- 의료 전문가들은 적절한 체중 감량만으로도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으며, 무릎뼈를 인공관절로 완전히 치환하는 수술을 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

[Healthline, 2022.06.07.; Wiley Online Library, 2022.04.12.]

## 중동·아프리카, 헬스케어 시장 연평균 11.7% 성장 예상

■ 중동 및 아프리카(Middle East and Africa, MENA)의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9년 1,855억 달러에서 연평균 11.7% 증가하여 '23년 2,43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진 중인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450억 달러로 추정되며, 238억 달러 규모로 사전 계획된 프로젝트가 향후 실행될 것으로 예상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헬스케어 지출은 '22년에 1,04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GCC의 헬스케어에 대한 정부 지출은 '16년 24억 달러에서 연평균 6% 증가하여 '21년 30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
  - \*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6개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 혼란에 대한 안보 대응 차원에서 1981년 채택 후 창설되어 각 국가 간 경제안보 협력을 추구
-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MENA 지역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수의 병상, 진료소, 약국, 수술실, 의료실험실, 물리치료센터 및 관련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의무적인 의료 보험 및 건강 보험 제도로 인해 MENA 국가는 더 많은 병원과 클리닉을 건설해야 하고 이 지역의 병원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의료 프로젝트 관련 업체에게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MENFN, 2022.06.11.; Gulf Today, 2022.06.12.]

## 미국 UnitedHealth,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1억 달러 투자

■ 미국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그룹은 인력부족 위기와 다양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억 달러를 인력 육성에 투자할 계획

- '22년 5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McKinsey)社에 따르면 미국은 '25년까지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간호사가 약 200,000~450,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시장조사기관 머서(Mercer)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 간호조무사 및 가정건강 보조원과 같은 320만 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워싱턴시티 소재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흑인 환자의 22%와 히스패닉 환자의 23%만이 같은 인종의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 인력의 다양성 부족 문제 직면
- UnitedHealth는 단일 지원활동 중 가장 큰 규모인 1억 달러 투자를 통해 부족인력을 육성하고 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추구하거나 발전시키고 있는 소수 인종 그룹의 10,000명의 임상의를 후원할 예정

[MedCityNews, 2022.06.08.; McKinsey&Company, 2022.05.11.]

## 치과 의료관광, '32년에는 243억 달러로 증가 전망

■ 치과 진료를 위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67억 달러를 형성한 가운데, 앞으로 연평균 13.6%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32년에는 243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치과 진료 관련 글로벌 의료관광의 확대 요인으로 개도국에서 첨단 의료 장비의 도입 증가와 선진국에서 헬스케어와 치과 진료 서비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주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치아 미용시장의 경우 연평균 18.1%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실제로 북미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인도와 태국, 중국 등이 치과 진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의료목적으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들을 크게 간소화시킴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개도국 병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나 첨단 치과치료용 의료기기의 도입 확대, 관광 프로그램과 결합된 의료 치료 패키지의 적극적인 출시 등은 치과 치료를 고려하는 선진국 환자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 '22년 기준으로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 치과 의료관광 시장의 53.9%를, 터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치과 의료관광 시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헝가리는 향후 연간 12.3%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Travel Daily News, 2022.05.23.; Digital Journal, 2022.05.26.]



##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Oracle, 전국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Oracle)社は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업체인 서너(Cerner)社를 283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 후, 수천 개의 병원을 중심으로 EHR 데이터를 가져오는 전국의료기록(national medical record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

- Oracle은 익명화된 데이터를 보유할 전국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의사와 임상이가 치료를 제공할 때 환자 기록에 더 빨리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전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익명화된 건강 데이터는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사용
- 오라클은 또한 음성 인터페이스, 더 많은 원격의료 기능 및 질병별 AI 모델과 같은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Cerner의 '밀레니엄 EHR(Millennium EHR)' 플랫폼을 현대화할 계획
- 상호운용성 전문가에 따르면, 1억 2,200만 명이 넘는 환자의 EHR 데이터를 결합한 비식별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Cerner 경쟁업체인 에픽(Epic)社は 이미 코스모스(Cosmos)와 같은 통합된 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추진

[Fierce Healthcare, 2022.06.10.; MedCityNews, 2022.06.09.]

### 미국 FDA, 심장 박동 감지 Apple Watch 앱 승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8년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용도로 애플(Apple)社の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Apple Watch)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의 빈도에 기반하여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ib)을 진단하는 기능에 대해 승인을 부여

- Apple은 최근 얼마나 자주 심방세동 징후를 보이는지를 알려주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 FDA의 510(k) 승인 절차를 마쳤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룬랩스(Rune Labs)社の Apple Watch 기반 파킨슨 질환 감지 애플리케이션도 FDA로부터 510(k) 승인 획득
- Apple의 애플리케이션은 지속적인 Afib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수면이나 알콜 섭취, 운동과 같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과 결부시킨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FDA의 510(k) 승인 절차는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고무장갑 등의 의료 장비인 Class 1과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Class 2 의료 장비에 대해 시판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를 통해 승인을 얻는 절차를 의미

[Medtech Dive, 2022.06.14.; Digital Trends, 2022.06.13.]

## 호주, AI 기반 의료 로드맵 제시

■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야에도 영상진단부터 개별의료, 질병 중증화 예측까지 AI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호주가 AI기반의 의료제도를 사회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존재

- 이에 호주는 '18년 정부기관, 의료기관, 대학, 벤처기업 등 100여개 조직이 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AI와 머신러닝 솔루션에 기초해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호주헬스케어인공지능연합(Australian Allian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AAAiH)'을 설립
- AAAiH가 '21년 12월 공개한 보고서는 △정밀의료 개발 및 사회적용(Precision Healthcare) △의료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국민이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Consumer Health) △AI기반 의료의 안전성, 질, 윤리성 확보(Safety, Quality and Ethics) △AI전문인재 육성(Workforce) 등 4가지 전략 영역을 제시
- 산업과학기술부 장관이 '21년 6월 발표한 'AUSTRALIA'S AI ACTION PLAN'은 '호주가 '30년까지 디지털 경제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목표를 제시
- 정부가 관련 로드맵 작성을 의뢰한 AAAiH는 AI기반 의료의 사회적용을 위해 8가지 우선과제와 그 대응책을 명시한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25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투입할 예정

\* 8가지 우선과제는 △Safety, Quality and Ethics △Privacy and Security △Governance and Leadership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force △Consumers △Adoption △Industry 등

[CIGS, 2022.06.09.; The Medical AI Times, 2022.06.14.]

## 중국, AI 기반 생물학 연구에 과감한 투자 실행

■ 중국은 최근 엄청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생물학 연구 분야에 AI를 접목시키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국들 역시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AI 적용의 발전과 거버넌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

- 중국은 바이오테크 분야를 '전략적 신생 산업'으로 정의하고, 바이오테크와 이에 따른 바이오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연구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바이오테크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등을 통한 혁신의 가속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 현재 중국에는 북경, 청도, 중경, 항주 등 17개 지역에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설립했으며, 바이오 분야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가속화
- 특히 기업과 연구소가 한 지역에 공존함에 따라 중국에서 바이오와 AI를 결합한 연구 결과가 급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중국은 글로벌 바이오 기술 분야를 선도

[CSET, 2022.06.01.; McKinsey QuantumBlack, 2022.06.07.]



## 베트남, 의료분야 디지털전환 추진

■ 베트남은 경제성장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로 사인(死因)에서 비감염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자 건강상태 개선, 평균수명 연장 등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21년부터는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활용을 추진

- 베트남은 의료제공체제 정비와 공중위생 향상 등을 배경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발전이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처럼 향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고령화 비율은 '20년 7.9%에서 '40년에는 1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
- 경제성장으로 질병구조도 급변하고 있는데 '90년대부터 심혈관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 등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상승하자 베트남 정부는 '15년 '비감염증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전략 2015-2025'를 공포하고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
- '18년에는 '베트남 건강'이란 캠페인을 통해 운동, 담배·알코올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등 10가지 우선 권장사항을 제시했으며 '30년까지의 목표로 '18세~69세 가운데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 20% 증가' '남성의 흡연을 및 음주율 각각 32.5%, 35% 감소'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
- 최근 베트남 정부가 DX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20년 공포된 '2025년까지의 국가DX와 2030년까지의 방향성'에서 의료분야를 DX추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선정했으며 보건부는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 및 전자 건강수첩 앱 운용을 시작
- EHR시스템은 의료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으로 '25년까지 인구 95%의 전자건강기록을 전국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

[MRI, 2022.06.13.; JETRO, 2022.05.]

## 아세안, 핀테크 적용을 통한 디지털헬스 확대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3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 분야의 핀테크 기술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 분야에 적용되는 핀테크의 현주소와 직면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의 특징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금융이나 정보 유통, 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 ADB에 따르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책 입안자들은 보건 의료분야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 분야를 넘어 오픈 बैं킹이나 임베디드 बैं킹으로 영역을 확대

[ADB, 2022.06.14.]

## 미국 BMS, 프랑스 Owkin사와 파트너십 체결

■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ristol-Myers Squibb, BMS)사는 프랑스 ‘인공지능 기반 임상개발 플랫폼’ 업체인 오우킨(Owkin)사와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체결

- Owkin과 Sanofi간 2억 7천만 달러의 암(cancer) 관련 협상 합의 후에 나온 이 거래는 BMS가 주도하는 시리즈 B파이낸싱과 선불 수수료로 나뉘어져 있으며, Owkin이 선불금 8천만 달러와 단계적인 기술료(milestone)로 1억 달러를 지급받는 등 양 사 간 총 계약규모는 1억 8천만 달러로 추산
- Sanofi와의 계약을 통해 양 사는 종양학 분야에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및 치료 표적을 찾기 위해 Owkin의 바이오의학 AI 예측모델을 활용하고 환자가 특정 치료에 반응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는 암 모델 및 방법을 구축할 예정
- 파트너십을 통해 양 사는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임상 및 실제 소스를 고품질의 다양한 데이터로 발전시켜, 발견 및 개발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Pharma Forum, 2022.06.09.; Biospace, 2022.06.10.]

##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 당면 과제와 확대방안

■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digital healthcare passport)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 의료기록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HIPAA 위반 △보안 및 데이터 침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들을 선결하는 것이 필요

\* 의료정보보호법인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은 △모든 의료정보와 기록을 온라인으로 한 위치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하며 △보안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플랫폼에 보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
-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의 사용으로 의료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의사소통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 산업에 연간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여권을 통해 사용되는 데이터가 각국의 의료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안 또는 데이터 침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이 필요
-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의 인식 부족을 개선하고, 생성되는 프로토콜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MDDI Online, 2022.05.24.; HIMSS, 2022.02.15.]